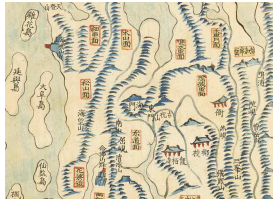


#화성시 지명

- ☞ '남양도호부'는 화성시 남양반도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던 옛 행정 구역으로, 현재의 남양읍은 옛 행정 구역의 일부이고 고호(古號)는 당성(唐城). 1913년에 당시의 수원군에 편입되었습니다.
- ☞ 2004년 발견된 반송동 탄요유적은 삼국시대(백제)의 솥을 구워내던 시설로 '솥가마'를 지칭하는 '탄요'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 ☞ 옛 지도를 통해 본 남양도호부의 곳곳에는 바다에 섬들이 많이 보이고, 내륙에는 파란색으로 줄기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빨간 불이 솟아오르는 산들은 '봉수'입니다.



*봉수 : 높은 산정에 봉화대를 설치해 정세를 중앙에 전달하는 군사통신 조직

- ☞ 현재의 봉담읍은 삼봉면, 갈담면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삼봉면과 갈담면을 합하여 생겨난 지명입니다.
- ☞ '팔탄면'이라는 지명은 조선 태조 때 여덟팔, 여울탄으로 태행산과 건달산에서 발원하는 지안천과 발안천이 흐르는 여울모습이 여덟팔자(8) 형상과 같다는 것이 유래되어 생겨났습니다.
- ☞ 진안동은 과거에 이곳에 기러기가 많이 날아와 진영을 이루듯이 진을 치고 있던 것을 유래로 지어졌습니다.
- ☞ 기산동은 옛날에는 의복을 만들기 위하여 삼베를 짜는 집이 많이 있었고, 베를 짜는 원료인 대마를 심는 야산이 많았다고 하여 마을의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베틀기(機), 뒀 산(山))
- ☞ 반정동은 마을이 형성된 곳이 여러 곳으로 쪼개져 있다는 유래에서 '반정마을'로 불리우고 있으며, 수원지역의 곡반정동과 합쳐서 '열두반정'이라는 명칭으로도 불

리우고 있습니다.

- ☞ 반월동의 이름은 마을 뒷산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반달처럼 모여 있다고 해서 이곳의 지명이 유래되었습니다. 순우리말로 부를 때 반달리가 되나, 소리 나는 대로 반다리로 불렸다고 합니다.
- ☞ 기배동은 기안동과 배양동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기안'이란 이름은 정조가 용릉에 제사 드리게 될 때 마을에 기를 꽂게 하였는데 이 마을의 위치가 안에 있어서 유래되었으며, '배양동'은 양질의 배양토가 많은데서 유래되었습니다.
- ☞ '만의사'는 동탄 중리 무봉산에 있는 절로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때 조선시대 서산대사가 수도한 곳으로 전해집니다.
- ☞ '만세길 방문자센터'는 만세길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선열들의 치열했던 투쟁을 함축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정읍 화수리의 오래된 보건소를 리모델링해 조성되었고,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문을 열었습니다.
- ☞ '쌍봉산'은 우정읍과 장안면 사이에 있는 산으로, 산 정상에 서면 우정·장안 두 지역의 전체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어요. 이 산은 두 개의 봉우리가 솟아 있어서 유래된 지명이에요. 또한 쌍봉산은 우정·장안 두 지역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세를 외친 곳으로, 화성시의 만세운동의 의미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 ☞ '송산그린시티전망대'는 송산 사업 지구와 철새 도래지, 공룡알 화석산지, 시화호 및 주변 지역을 관광할 수 있으며, 간척지 너머 서해바다에 펼쳐지는 낙조도 감상할 수 있는 우음도에 해발 100m에 세워졌습니다.
- ☞ 만년제는 원래 방축수라는 이름의 작은 저수지였는데, 1795년 정조가 용릉을 방문하였을 때 새로 이름을 지어주었던 용건릉 근처의 저수지입니다. 정조는 만년제의 토사를 파내고 물길을 소통시켜 크

게 확장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백성들이 농사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뜻에 한 말입니다.

- ☞ 정조는 용릉에 성묘하러 오는 길에 표석과 장승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표석과 장승이 없어졌지만, 화성시에는 만년제와 안녕리 표석이 남아있습니다.
- ☞ 향남읍에 있는 '길성리'의 지명의 유래는 긴 성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 ☞ 화성시 서신면의 '궁평고잔길'은 행정구역명칭과 자연마을명칭을 합성해서 지은 도로명입니다. 궁평고잔길은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로 모래밭에 자생하는 해당화가 많고, 집집마다 봉선화와 아기씨꽃이 무성해 꽃전이라고 불리웠으며, 백제가 이 곳에서 크게 패하여 쇠퇴하였다는 의미로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 ☞ 우정읍 이화리(梨花里)는 예부터 배가 마을 앞까지 드나들어서 주곡(舟谷)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여기서 이화(梨花)는 배곳의 우리말의 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자 배나무 이(梨)는 우리말 배를 뜻합니다.
- ☞ 화성 송교리는 순 우리말로써 솔다리입니다. 지명유래집 등에서는 소나무로 만든 다리라고 유래가 밝혀져 있지만, 재료로 이름을 짓는다면 목교라고 표기했을 것으로 예측되어, 솔다리의 지명은 폭이 좁은 다리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 ☞ 화성 매화리는 우리말로 매골, 맏골로 불렸습니다. 원래는 바다 쪽으로 돌출한 마을 지명을 따서 매곶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뫼곶→매곶→매곶→매골로 음운이 변화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 ☞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수원군의 동북면과 여탄면이 현재 '동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 ☞ 정남면은 정림면의 '정'과 남곡면의 '남'이 합쳐진 지명입니다.
- ☞ 마도면의 '마도'라는 명칭은 중국사신이 마(삼베)로 된 옷을 입고 지나간 길이라는 뜻입니다.

#화성시 문화

- ☞ 남양향교(경기도 문화재 34호)는 화성시 남양읍에 있으며 조선시대에 남양도호부에 유학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으로 지금의 학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 ☞ 남양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의 공립학교로 원래 관아 근처인 역골에 있었는데 습기가 많아 건물이 자주 훼손되어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초등교육기관인 서당을 마친 후 중등교육을 받는 지방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입니다.
- ☞ 대성전은 향교의 중심인 건물로 큰 성인을 모신 전각이라는 뜻인데요, 대성전에서는 공자를 비롯한 위패를 모시고 봄과 가을에 제향을 지내는 장소입니다.
- ☞ 조선시대 공립교육기관인 '향교'에는 유생들의 학생기록부가 있었는데요, 남양향교에도 있던 조선시대 유생들의 학생기록부를 '청금록'이라고 부릅니다. '청금'은 푸른 옷소매란 뜻으로 푸른색 옷을 입는 유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청금록에는 학생들의 이름, 자, 생년, 본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 반송동 행장골유적에서 발견된 삼국시대(백제) 탄요 중에서 비교적 형태가 잘 남아있는 1호와 2호 탄요유적은 보존하기로 하였는데요, 1호는 더 이상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흙을 덮어 안전하게 보존하고 안내판을 세워 두었습니다.
- ☞ 오산리 석불입상은 현재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 있지만, 원래 동탄면 오산리에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훼손된 상태이나 미소 띤 호방한 얼굴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고려말 조선초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추정됩니다.
- ☞ 왕실에서 왕자, 공주, 옹주가 태어나면 길지를 선정해 태를 봉안하던 곳을 '태실'이라고 하는데요, 화성시 동탄호수 2길 25 태봉산 정상에는 선조와 인빈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왕녀아기씨 태실'

이라고 새겨진 ‘정숙옹주’의 태실이 있습니다.

- ☞ 남양도호부는 조선시대의 관아로 오늘날의 시청과 같은 곳입니다. 관아에는 수령이 거주하는 공간인 내아를 비롯하여 죄수를 가두는 옥사까지 많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 ☞ 화성시 남양도호부에는 여러 관아가 있었는데요. 그 중 홍살문은 관아 영역의 가장 바깥에 위치하는 문으로, 경계를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 ☞ 1668년 남양도호부 백성들이 병자호란 때 순절한 남양부사 ‘윤계’의 충절을 기억하기 위해 순절비를 세웠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와 관료가 참여하여 만들었습니다.
- ☞ 남양읍에 있는 ‘순절사’는 1636년 병자호란 때 남양부사 윤계와 홍언인 등 순절한 분들을 모신 곳입니다.
- ☞ 매송면의 ‘우성전 신도비’는 종2품 이상 지낸 관리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으로, 우성전의 업적을 기록하였습니다.
- ☞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에는 효자 최루백의 아버지 최상저의 자취를 알리고 추모하는 비석인 ‘유허비’가 있는데요. 유허비란 선현들의 자취를 후세에 알리거나 추모하는 비석입니다.
- ☞ 조지훈 시인이 19살 되던 1939년에 용주사에서 비구니가 추는 승무를 보고 ‘승무’라는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화성 용주사에서는 ‘승무’를 전국 최초로 공연해 오고 있습니다.
- ☞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에 있는 ‘화성 마하리 고분군’은 1995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서기 200~400년대 초반까지의 초기 백제생활상을 밝힐 수 있는 대규모 고분단지임이 밝혀졌습니다. 고분의 형태도 다양해서 나무널무덤, 나무덧널무덤, 돌덧널무덤, 굴식돌방무덤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 1895년 경기도문화재 자료 74호로 지정된 ‘홍승인 고가’는 원래 ‘전주 최씨’가

살다가 ‘남양 홍씨’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집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 ☞ 봉담에 위치한 엄미술관은 경기도 미술관 설립허가 1호로, 조각가 엄태정교수의 작업실이자 전시공간입니다.
 - ☞ “은행나무 정보화 마을”에는 약 400년 수령의 시 보호수인 은행나무가 있는 마을로, 주산봉 생태 체험장에서 다양한 식물체험을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초기 소 목축이 시작된 마을답게 치즈 만들기, 요구르트 만들기 등 다양한 낙농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발 165m의 구봉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위치한 당성은 사적 제21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성은 신라시대에는 ‘당항성’이라고 불리우며 중국과 통하는 길목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성은 또한 시대를 달리해서 여러 차례 축조되었는데, 산기슭에서부터 능선을 따라 정상부까지 계곡을 하나 또는 여러 개 감싸고 축성하는 방식인 ‘포곡식’으로 둘러졌습니다.
 - ☞ 화성시 북양동에 있는 ‘봉림사’라는 절의 이름은 창건 당시 궁궐에서 기르던 봉황새가 절 주위의 숲에 와서 앉아 있어서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봉림사에는 보물 제980호로 지정된 높이 87cm의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 ☞ 봉림사가 있는 비봉산도 봉황이 날아와서 지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 ☞ 봉담읍 분천리 고분에서는 네 면의 벽을 돌로 쌓아 만든 덧널 내부에 나무로 만든 관을 넣은 형태의 ‘돌덧널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 ☞ 향남읍 요리 고분에서는 1~3개의 향아리를 맞붙여 옆으로 높힌 형태의 돌널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 #화성시 역사**
- ☞ 화성시의 구석기 시대에는 반월동, 오산동, 청계동 등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마도면 석교리에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 ☞ 화성시는 고려 시대를 거치면서 940년

수주, 당성군으로 개편됩니다. 1271년에는 수주를 승격시켜 수원도호부로 개편하게 됩니다. 조선1413년(태종13년)에 '수원'(水原)으로 최종 개명되며 수원도호부와 남양도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 ☞ 정조는 13년(1789) 생부인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원(園)을 당시 수원 읍치(邑治)의 진산(鎭山)인 화산(華山)으로 이장하고, 이곳에 있던 읍치를 지금의 팔달산 밑으로 옮겼으며, 이후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華城留守府)로 승격시켰습니다.
- ☞ 화성시 청계중앙공원 매장문화재 유적에서 발견된 유적은 삼한시대~삼국시대 토기가마, 고구려 굴식 돌방무덤, 통일신라시대 집자리, 조선시대 집자리유적입니다. 각 시기별로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에 포함되었는데요. 이 때 우리 지역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은 '당성'과 '매홀'입니다.
- ☞ 화성시 청계동 청계동 유적에서 발견된 고구려무덤의 형태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판모양의 돌을 이용하여 널을 넣는 방을 만들고 한쪽에 출입구를 만든 뒤 흙을 덮어 만든 무덤을 말합니다.
- ☞ 남양도호부의 내아는 수령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공간인데요. 내아는 'ㄱ'자 형태로 정면4칸과 날개채 3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남양도호부 내아는 '남양풍화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 팔탄면 창곡리에는 '금산사'라는 사우(祠宇)가 있는데요. 사우란 서원 안에 성현의 신주나 영정을 모셔두는 건물, 즉 사당을 말합니다. 금산사는 향토문화재(유형) 제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 ☞ 경기도 기념물 제224호인 '화랑진성'은 경기 좌도 수군을 관할했던 진성으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곳에는 '수군'이 주둔하였습니다.
- ☞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정시영 고택'은 조선 후기 안채·사랑채·바깥채·안행랑채

와 대문간채 등으로 구성된 국가 민속문화재입니다(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 솟을대문의 상량대 목서명(墨書銘)에 1887년(고종 24) 문을 세웠다고 하였고, 안채는 이 문보다 약 50여 년 전에 세웠다고 하므로 대략 19세기 초엽에 창건된 집으로 추정됩니다.

- ☞ 고정리의 화석산지 일대에는 여러 퇴적층 내에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 이 지역을 비롯해 시화호 일대가 약 1억 년 전에는 평원을 이루어 한반도 내 공룡의 주요 서식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화호는 '시흥'과 '화성'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 ☞ 사도세자(추존 장조)의 무덤인 용릉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원형의 연못인 곤신지(坤申池)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풍수적 논리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 ☞ 용주사 대웅보전의 주심포 아래에는 용 조각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의 용은 물고기를 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고기를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극락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 용릉 조성 후 정조는 13번이나 이 곳을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 ☞ 2015년 향남읍의 도로건설 공사를 위해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고분 10여 개가 조사되었는데 그중 하나에서 경기 지역 최초로 금동관과 금동신발이 향남읍 요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금동관은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있습니다. 또한 요리의 금동관이 나온 무덤은 나무로 만들어진 널과 그 바깥으로 널을 넣는 공간인 덧널 무덤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 발안리 마을 유적에는 음식을 해먹는 부뚜막과 '쪽구들'이라고 불리는 온돌시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부뚜막은 부엌 아궁이 위에 흙과 돌을 쌓아서 솔을 걸어놓은 곳입니다. 현대의 가스레인지와 같은 용도이며, 쪽구들은 돌을 한쪽 바닥에만 달궈서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용도입니다.

- ☞ 2001년 김주홍의 「조선시대의 봉수」저서에서는 화성지역의 서봉산과 건달산에 봉수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현재의 당성지역으로 이어지는 700리 육로를 ‘당은포로’라고 불렀습니다.
- ☞ 향남읍 송곡리 출신인 이동안(1906~1995)은 춤과 줄타기 또 이 예술의 경지에 올라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에 ‘발탈예능보유자’로 지정 되었습니다. ‘발탈’이란 발에 탈을 씌우고 갖가지 동작을 연출하는 민속연희입니다.

#화성시 기본현황

- ☞ 우리가 사는 곳 화성은 1949년 화성군으로 개편되었고, 2001년 화성시로 승격하였습니다.
- ☞ 「2019 화성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 인구의 산업대분류별 종사자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제조업’입니다.
- ☞ 「2019 화성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의 노인이 느끼는 문제는 경제문제(46.6%), 외로움·소외감(21.7%), 건강문제(18.1%)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 「2019 화성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민의 주택유형은 아파트(64.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독주택(20.4%), 연립·다세대주택(9.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 「2019 화성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의 인구 성별은 남자(52%)가 여자(4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2019 화성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민이 통학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라고 합니다.
- ☞ ‘동탄호수공원’은 호수를 따라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대규모 피크닉장, 피톤치드 숲 등이 있는 도심 속 웰빙 공간입니다. 컨테이너 브릿지를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특화벤치에서 안락하게 호수 경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 ☞ 화성시를 상징하는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우리 시 모든 지역에 자라고 단단하고 잘 썩지 않으며, 벌레가 생기거나 휘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바닷가 해송 숲은 바람이 마을로 몰아치는 것을 막고, 나뭇결이 곱고 뒤틀리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습니다.
- ☞ 화성시의 슬로건은 ‘길이 열리는’ 화성시입니다.
- ☞ 화성시를 상징하는 꽃은 목백일홍입니다. 배롱나무꽃인 목백일홍은 굵은 빗줄기와 비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꽃피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날에 꽃이 피어 100일 동안이나 선명하고 화려한 붉은색을 자랑합니다.
- ☞ 화성시는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생산단지를 육성하여 화성시의 쌀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여 화성 쌀 안정생산 및 화성 쌀 브랜드 이미지를 재고하고자 하였습니다.
- ☞ 1970년 수원시에 있던 화성군청은 오산읍으로 이전하였고, 2000년 남양읍으로 이전 하였습니다.
- ☞ 동탄에는 8개의 동이 있습니다.

#화성시 정책

- ☞ ‘이음터’는 화성시가 신개념 평생학습도시의 주춧돌을 놓는 해법으로 마련한 시책으로, ‘지역과 학교, 사람을 잇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의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 ☞ ‘노노카페’는 실버 바리스타가 만드는 행복커피를 판매하는 시민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시책입니다. 화성시는 노후 빈곤과 건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로 ‘노노카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성시의 가장 성공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명사이자 더불어 살기 좋은 화성시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 ☞ 화성시 시티투어는 ‘착한여행 하루’와 ‘생태투어 소풍’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화성시 인물

- ☞ 1636년 12월 청나라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왔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남양도 호부에도 나타났어요. 남양부사 ‘윤계’는 청나라 군대에 맞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뜰아래에 두 개의 깃발을 마주 세워 놓고 대청마루에 팔짱을 끼고 앉아 산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적이 무릎을 꿇으라고 다그치자 윤계는 “머리를 잘릴지언정 무릎은 구부릴 수 없다.”고 저항하였습니다.
- ☞ 남양도호부의 수령 중 한 사람인 ‘정도전’은 조선의 기틀을 만든 설계자입니다. 정도전은 주로 중앙의 주요 관직에 임명되었는데 유일하게 지방관직으로 임명된 관직이 바로 ‘남양부사’였습니다. 또한 ‘삼봉집’이라는 시문집을 남겼습니다.
- ☞ 남양도호부의 수령 중 한 사람인 ‘허임’은 조선시대 침술의 대가로서 아버지는 관아의 노비였지만 의술을 익혀 국왕의 주치의가 되었어요. 뛰어난 의술로 신분도 상승하고 남양부사로도 임명되었답니다. 1644년 ‘침구경험방’이라는 침구에 관한 의서를 저술하였습니다.
- ☞ 노작 홍사용은 일제강점기에 <나는 왕이로소이다>, <봄은 가더이다>, <그것은 모두 꿈이었지마는> 등의 시를 저술하였습니다.
- ☞ ‘이정근’은 화성시의 독립운동가로 궁내부 주사로 근무하다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낙향하였습니다. 이정근은 발안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이끌다가 일본인 순사의 칼에 순국하였습니다.
- ☞ ‘전동례’할머니는 제암리 사건의 목격자로 22세에 일본인들에 의해 제암리 교회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63년이 지난 후 1982년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유골을 발굴하게 되었는데요. 제암리 사건은 할머니에 의해 1991년 <두렁바위에 흐르는 눈물>이라는 구술자서전으로 남겨졌습니다.
- ☞ ‘홍면옥’은 송산면의 3.1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송산면사무소 앞에서 200여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송산면 사강장날 장터에 모여 만세 시위를 하다가 일본순사 노구치가 쏜 총에 맞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 ☞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인 우성전(禹性傳 : 1542~1593)과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우하영(禹夏永 : 1741~1812)의 묘역이 매송면 속곡리에 있습니다. 이 묘역은 2003년 4월 21일 경기도의 문화재자료 제121호로 지정되었는데요. ‘우성전’은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으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으며, 강화도에 들어가서 김천일(1537~1593)과 합세하여 전공을 세우고 강화도를 장악하여 남북으로 통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정치상황을 ‘계갑일록’을 통해 남겨, 실학자인 7대손 우하영과 함께 도내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 ☞ 우하영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며 사회실정을 체험하는 한편, 국가 사회의 경영 개혁방안을 저술하기도 하였는데요. 그의 저서인 「천일록」은 우리나라의 역사·지리·전제(田制)·군제·국방·관제·농업 기술문제 등에 관한 그의 독창적인 사상과 정책을 기술한 책으로, 1796년(정조 20년) 조정의 구언교서(求言敎書)가 내리자 그는 이를 간추려 정리하여 책자로 만들어 바쳤고, 1804년(순조 4년)의 구언 때 이를 다시 보완하여 『천일록』이라는 제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 ☞ 화성시 양노리에는 평양 조씨 일가의 묘역이 있습니다. 이 묘역의 주인인 조세성, 조세성의 아들 조동점, 조동점의 아들 조완은 모두 고위 무관직을 역임하였습니다. 특히 조동점과 조완은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당시 맡았던 삼군수도 통제사 관직을 수행했습니다.

#화성시 기타상식

- ☞ 2004년 반송동 행장골 유적 발굴조사과정에서 삼국시대 솥을 구워내던 시설이 발견되었고, 이곳에서 생산된 솥은 철을 만드는 등 높은 열이 필요한 작업에 활용되었습니다.
- ☞ 화성을 대표하는 8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모아 화성8경이라고 부릅니다. 화성8경은 제1경 용건릉, 제2경 용주사 범종, 제3경 제부모세, 제4경 궁평낙조, 제5경 남양황라, 제6경 입파홍암, 제7경 제암만세, 제8경 남양성지가 있습니다.
- ☞ 해발 165m의 구봉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위치한 당성은 사적 제21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성은 신라시대에는 ‘당항성’이라고 불리우며 중국과 통하는 길목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성은 또한 시대를 달리해서 여러 차례 축조되었는데, 산기슭에서부터 능선을 따라 정상부까지 계곡을 하나 또는 여러 개 감싸고 축성하는 방식인 ‘포곡식’으로 돌렸습니다.
- ☞ 화성시는 한반도 중서부에 속하는 경기도의 서남 해안을 끼고 위치해 있으며, 육지로는 7개 시를 접하고 바다로는 서해의 평택항으로 충청남도과 경계되며 서쪽의 용진군과 접하여 선감도, 대부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경계는 동으로 용인시 남사면, 이동면과 접하고 남으로는 오산시와 평택시의 진위면, 서탄면, 청북면, 포승면과 연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의 수암동 및 용인시 기흥구가 각기 접하고 있습니다.
- ☞ 2021년 5월 화성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465,492대입니다.

- 끝 -